

---

# 개관 및 종합평가



## 금융안정 상황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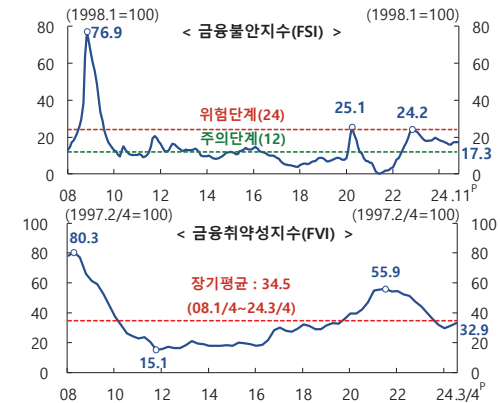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최근 국내외 높은 불확실성 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되었으나, 양호한 금융기관 복원력, 대외지급능력 등을 감안할 때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와 함께 통화정책 긴축 완화 과정에서 중장기적 금융불균형 누증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년 들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금리에 선반영되면서 2/4분기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가운데 7~8월중에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화되는 등 금융불균형이 확대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물가 및 실물경제 측면에서 금리인하 여건이 조성되었음에도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하여 8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고, 정부 및 감독 당국도 거시건전성 규제를 선제적으로 강화하였다. 이러한 정책 조합에 힘입어 9월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 및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한편 가계와 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비은행을 중심으로 상승하였으나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였다. 다만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다소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sup>1)</sup>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금융시스템의 단기적인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sup>2)</sup>(FSI)는 주의단계(2024년 11월중 17.3)에 머물러 있다. 한편 중장기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sup>3)</sup>(FVI)는 2024년 3/4분기 32.9로 지난 1/4분기(29.6)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장기평균(08년 이후 34.5)을 하회하는 수준에 있다.

금융불안지수(FSI)<sup>1)3)</sup> 및 금융취약성지수(FVI)<sup>2)3)</sup>



- 주: 1) 단기적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 및 실물 부문의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0~100). 주의 및 위험 단계 임계치는 각각 12와 24로 설정  
2) 중장기적 금융취약성 상황을 나타내는 3개 평가요소(자산가격, 신용축적 및 금융시스템 복원력)와 관련된 39개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0~100)  
3) 모수의 시변성으로 인해 향후 지수값이 변동될 수 있음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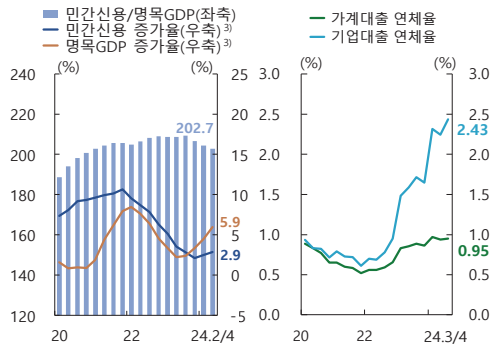
##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

국내 금융시스템 내 취약성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신용시장**에서는 가계대출이 은행 및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었다가 8월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등에 힘입어 둔화 흐름을 나타내었으며, 가계대출 연체율도 가계의 채무부담 완화<sup>4)</sup> 등으로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한편 기업대출은 비은행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연체율은 이들 대출에서 상승세를 지속

1) 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의 불안 가능성에 대응하여 12월 4일 금융통화위원회 임시 회의를 개최하여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RP매입 대상증권과 대상기관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비정례 RP매입을 실시하는 등 단기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였다. 또한 정부도 최대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준비하고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였다.  
2) 금융불안지수(FSI, Financial Stress Index)는 금융불안 관련 금융 및 실물 부문의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0~100)로, 주의 및 위험 단계 임계치는 '잡음/신호 비율(noise-to-signal ratio)' 방식에 따라 각각 12와 24로 설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 <참고 7> 「금융불안지수(FSI) 개편 결과」를 참고하기 바란다.  
3) 금융취약성지수(FVI, Financial Vulnerability Index)는 3개 평가요소(자산가격, 신용축적 및 금융시스템 복원력)와 관련된 39개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0~100)이다.  
4) 자세한 내용은 <참고 4> 「최근 은행 여수신금리 흐름 및 차주의 이자상환부담 변화 점검」을 참조하기 바란다.

하고 있다.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년말 대비 높아지면서 이자지급능력이 개선되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었다.

**민간신용<sup>1)</sup> 레버리지<sup>2)</sup>      가계 및 기업 대출 연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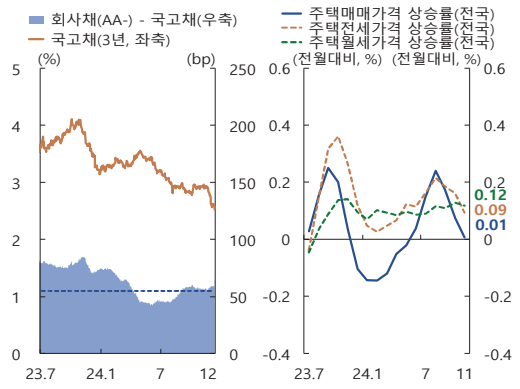
주: 1) 저금순환통계 기준  
 2) 명목GDP(20년 기준)는 해당 분기 및 직전 3분기 합산  
 3)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자산시장**에서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 미 대선 전후 정책 불확실성에 더해 국내외 물가·경기 지표 추이 등의 영향으로 시장금리 및 주식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변동성이 다소 높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드는 장기평균 수준에서 등락하였다.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8월까지 상승세가 크게 확대되었다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및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둔화되었으며, 전월세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오피스임대가격 상승)와 상가(하락세 지속) 간에 차별화된 모습이 지속되었다.

**금융기관 건전성**은 비은행을 중심으로 다소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은행 및 보험은 자산 증가세 및 수익성이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 부동산PF 사업성 재평가에 따른 자산건전성 재분류, 차주의 상환부담 등으로 인해 자산 성장세 및 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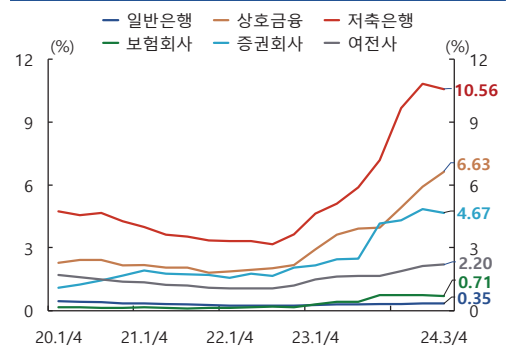
성 부진이 지속되었다. 증권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산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익성은 대체로 저하되었다. 한편 자산건전성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큰 폭 상승하였다.

**국고채금리·신용 스프레드      주택가격 상승률**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국부동산원

**금융업권별 고정이하여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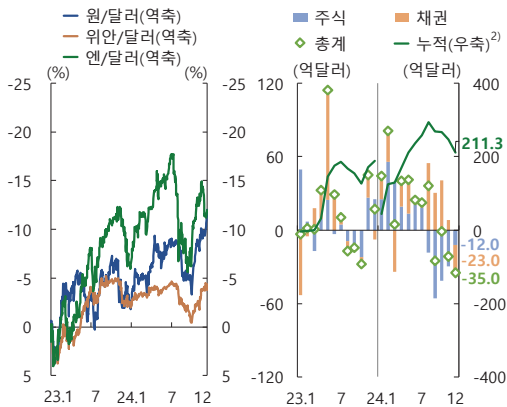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대외부문을 살펴보면**, 외환시장에서는 미 연준 통화정책 기대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미 대선 전후 정책 불확실성 증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반기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다. 환율 상승은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일부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된다.<sup>5)</sup> 한편 외국인 국내증권투자는 주식과 채권 모두 누적 기준

5) 자세한 내용은 <참고 8> 「환율 상승이 국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참조하기 바란다.

순유입을 기록하였다.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미 증시 호조,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주식과 채권 모두 순투자 규모가 확대되었다.

미 달러화 대비 절상·절하율<sup>1)</sup>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증감



주: 1) 2022년말 대비 절상·절하율  
2) 연도별 1월 이후 누적 순유입액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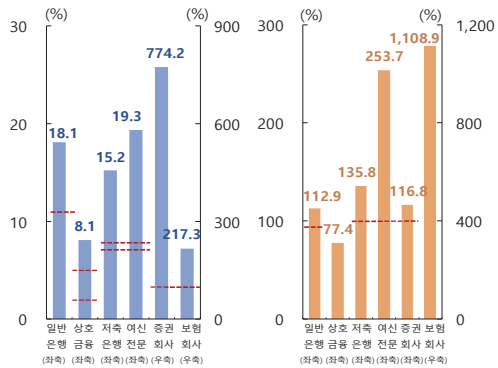
금융시스템 복원력

금융시스템의 대내외 충격 감내능력이 복원력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금융기관**은 양호한 수준의 복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부분 업권에서 고정이하어신 규모 증가로 인해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 하락하였으나, 각 업권의 자본적정성 비율과 유동성비율이 모두 규제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외지능능력**은 순대외채권이 소폭 감소하고 단기외채 비중이 상승하였으나 주요 대외건전성 지표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였다.

한편, **금융시장인프라**로서 지급결제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한은금융망 등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결제규모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결제리스크도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금융기관 자본적정성 비율<sup>1)</sup> 금융기관 유동성비율<sup>2)</sup>



주: 1) 2024년 3/4분기말 기준(단, 보험회사 자본적정성 비율은 24년 2/4분기말, 일반은행 유동성비율은 24년 10월 기준)  
2) 붉은색 점선은 각 업권별 규제기준(규제비율 수준은 II. 복원력 1. 금융기관 부문 참조)을 의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주요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였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물경기 성장 흐름이 둔화되는 가운데 국내외 정치 불확실성도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환율, 주가 등 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감동당국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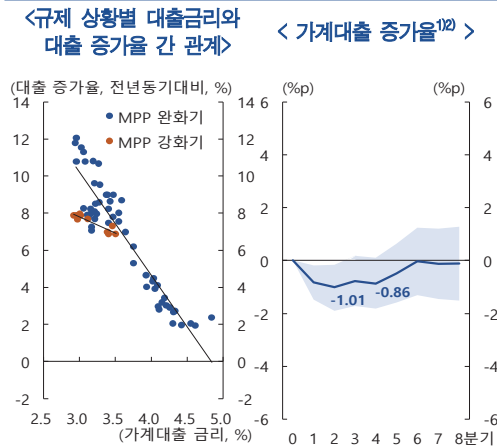
단기적으로는 그간의 긴축적 금융여건 하에서 자영업자<sup>6)</sup> 등 취약부문의 신용위험 증대, 부동산PF 추가 부실 우려<sup>7)</sup>, 환율 변동성 확대 영향 및 동 요인들로 인한 금융기관 건전성 저하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신용리스크 등 단기 금융불안 요인들은 금리인하 과정에서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장기 금융안정 관점에서 국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복원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sup>8)</sup>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6) 자세한 내용은 <참고 1> 「최근 자영업자 대출의 차주 특성 및 연체율 분석」을 참조하기 바란다.  
7) 자세한 내용은 <참고 2> 「부동산PF 구조조정의 영향 및 관련 잠재리스크 점검」을 참조하기 바란다.  
8) 자세한 내용은 <참고 6>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영향 및 기대효과」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에 금번 보고서에서는 통화정책 긴축 완화에 경제주체의 기대 변화로 인한 금융불균형 축적 등 향후 발생 가능한 금융안정 리스크들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구조 변화를 감안하여 관련 잠재리스크를 평가하였다.

먼저 과거 금리 인하기<sup>9)</sup>의 금융안정 상황 변화를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원리금상환부담 경감 및 실물 경제 회복 등으로 금융기관 연체율이 하락하는 등 금융안정 상황이 개선되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가계 신용 증가,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취약성이 누적되고 위험 선호 및 수익률 추구가 강화되면서 비은행금융 중개(NBFI)가 빠르게 확대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번 금리 인하기에는 시장금리의 하락 기대 선반영,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의 요인들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리 인하 시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등 금융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선제적인 거시건전성 규제강화는 이러한 잠재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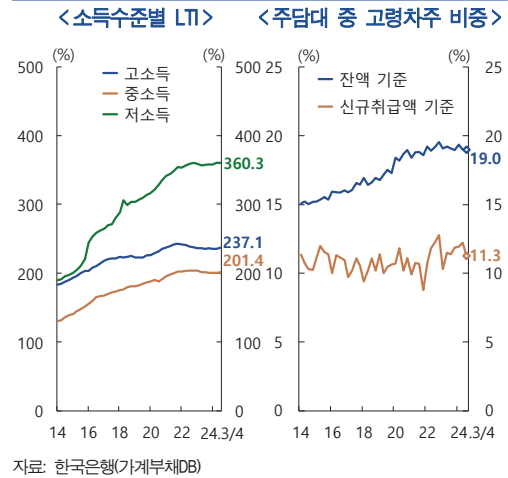
### 가계대출에 대한 거시건전성 규제(MPP) 강화 효과



주: 1) 거시건전성 규제강화가 각 분기별 가계대출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2) 음영은 95% 수준에서의 신뢰구간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시산

다음으로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구조는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가운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 비은행 대출 비중 축소 등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가계부채 확대 과정에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부채의존도가 높아진 점과 고령층의 부채 축소(deleveraging)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관련한 잠재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가계부채 구조 변화를 감안하여 연체가구 비중을 추정된 결과, 향후 소득 및 자산가격 하락 충격 발생 시 자영업자 및 고령층 연체가구 비중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 인해 금융기관 자본비율이 하락(-0.4~ -1.3%포인트)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신용 손실 발생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sup>11)</sup>

### 우리나라 가계부채 관련 잠재리스크



9) 현재와 유사한 경제 여건 및 금리 수준에서 인하를 시작했던 기간(2012년 3/4분기~2017년 3/4분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0) 자세한 내용은 <주요 현안 분석 1> 「금리 인하기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및 시사점」을 참조하기 바란다.

11) 자세한 내용은 <주요 현안 분석 2> 「최근 가계부채 현황 및 잠재리스크 점검」을 참조하기 바란다.

## 정책 대응 방향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가운데, 시장불안 요인이 발생할 경우 적기에 시장안정화 조치<sup>12)</sup>를 실시하는 등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편, 통화정책 긴축 완화는 단기적으로 신용위험을 낮추고 경기의 하방리스크를 축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여건 완화에

대한 경제주체의 기대가 과도하거나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자산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금융불균형을 중장기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적절한 조합(policy mix)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가계부채가 부동산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리츠(REITs)를 활용한 주택금융 등 구조적인 가계부채 개선방안들도 강구해 나가야 한다. 한편 긴축적 통화정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기업부문의 채무상환능력 개선을 위해서는 이자부담 축소에 더해 업황 개선에 따른 영업이익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으므로, 업황개선까지의 시차를 고려

12) 한국은행은 향후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다음과 같은 정책 수단들을 강구할 수 있다.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활용가능한 정책 수단

활용가능한 정책 수단		주요 내용	2024년 12월중 시행 여부
원화 유동성 공급	유동성 흡수 규모 축소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 축소 및 중도환매 실시, RP매각 및 통화안정계정 예치 규모 축소	
	RP매입	RP매입을 통해 대상기관에 유동성 공급, 필요시 한도 없이 고정금리로 수요 전액을 배정하는 전액공급방식 RP매입 실시	12월중 비정례 RP매입 실시 (전액공급방식 RP매입 미시행)
	국고채 단순매입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유통시장에서 국고채를 매입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 확대	RP매매 대상증권 <sup>1)</sup> 및 대상기관 <sup>2)</sup> 을 추가 선정	한시적 운영중 (24년 12월 4일 ~ 25년 2월 28일)
	금융기관 및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한국은행법 제64조·제80조)	금융기관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시 영리기업에 대해서도 직접대출 가능	
외환시장 안정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활용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sup>3)</sup> 을 활용한 가용 외화유동성 확보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국민연금과 외환스왑 거래를 통해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	기간 연장 (25년말까지), 한도 증액 (억달러, 500→650)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sup>4)</sup>	은행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비율(현재 국내은행 50%, 외은지점 250%)의 상향 조정이 가능	
	외환건전성 부담금 <sup>4)</sup>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 등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	국내 금융회사가 보유한 외화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여 달러화 자금을 공급	
지급결제 안정	금융기관 순이체한도	원활한 지급결제를 위해 금융기관의 순이체한도 확대 및 담보 설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주: 1) 현행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9개 공공기관 발행 채권,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를 추가

2) 현행 RP매매 대상기관에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전체를 추가

3) 한국은행은 2024년 12월 기준 캐나다, 스위스, 일본, 호주 등과 통화스왑을 체결중

4) 정부는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

자료: 한국은행

하여 일시적 취약기업들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sup>13)</sup> 또한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일부 업종의 기업 유동성 상황에 대해 유의하는 한편, 국내기업의 수출에 대한 구조적 제약요인이 장기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sup>14)</sup>됨에 따라 기업부문의 구조적인 개혁 노력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환율 변동성 증대,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등 향후 발생 가능한 대내외 충격들이 국내 금융시스템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은 유동성 및 자본적정성 관리 강화를 통해 복원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등 일부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예금 특성의 변화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sup>15)</sup>이 있으므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유동성 대응계획(BCP)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계 및 기업 대출 연체율은 향후 금리인하 과정에서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가계 및 기업 차주의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자산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은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사업부진 요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 및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 교육 등 재기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금융여건이 완화되는 상황 하에서 비은행금융중개(NBFI) 부문의 리스크가 빠르게 축적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sup>16)</sup> 또한 수익 추구 강화 과정에서 비전통적 금융수단에 의한 새로운 리스크의 출현을 식별하고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13) 한국은행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10월과 11월에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연 2.00%에서 연 1.50%로 인하하였다.

14) 자세한 내용은 2024년 11월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핵심이슈> 「우리 수출 향방의 주요 동인 점검 및 시사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15) 자세한 내용은 <참고 3> 「인터넷전문은행 자금 조달 및 운용 여건 점검」과 <참고 7> 「최근 저축은행 손실흡수력 및 유동성 대응 능력 평가」를 참조하기 바란다.

16) 자세한 내용은 <참고 5> 「국내 비은행금융중개(NBFI) 현황 및 리스크 점검」을 참조하기 바란다.



## 금융안정 상황 : 일부 시장 변동성 증대에도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

대내외 여건	(+) 금융기관 복원력 및 대외지급능력 양호 (-) 실물경기 하방 압력 증대 (-)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금융 불안지수 (FSI)	최근 소폭 상승 주의단계 지속	금융 취약성지수 (FVI)	상승 전환 장기평균 하회





### 취약성 및 복원력

신용시장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세 지속
자산시장	수도권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둔화	국내 추가 약세
금융기관	자본적정성·유동성 양호	비은행 자산건전성·수익성 저하
대외부문	대외지급능력 양호	환율 변동성 증대

### 리스크 요인

신용시장	금리 하락 기대에 따른 금융불균형 확대 우려
자산시장	국내외 정책 불확실성·지정학적 리스크
금융기관	취약부문 신용위험
대외부문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여건 불안 가능성

### 정책대응

 정책당국 간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내외 리스크 요인 전개 양상 모니터링 강화</li> <li>• 예상외 시장불안 요인 발생 시 적기 시장안정화 조치 실시</li> </ul>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정책 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적 금융불균형 확대 방지를 위한 정책 조합 필요</li> <li>- (가계) 거시건전성 규제의 선제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li> <li>- (기업) 일시 취약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 유지</li> </ul>
 금융기관 복원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리스크 확산 방지를 위한 금융기관 복원력 제고 지속</li> <li>• 취약 금융부문의 유동성 관리 강화 및 대응계획(BCP) 개선</li> </ul>
 모니터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주와 금융기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유지</li> <li>• 비은행금융증개 부문 및 비전통적 금융수단 리스크 파악</li> </ul>